사찰화재보험 '인식 확산'

잇단 화재로 목조건물 전소…해동화재에 50여 사찰 가입

문경 김용사(주지 자광)에 지 난 12월 30일 밤 원인불명의 화 재가 발생, 설선당등 목조건물 3 개동 214평이 전소됐다. 3개동의 건물을 복구하는데는 20억 이상 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화 재보험을 전혀 들지 않았으므로 불사금의 조달이 상당한 어려움 으로 남았다.

작년 11월21일 원인 모를 화재 로 목조 2층건물인 요사채 2백여 평이 전소된 논산 관촉사(주지 혜석)의 경우는 요사채에 대해 화재보험을 들어 월 26만원 가량 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해동 화재보험에서는 최근 2억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관촉사에 지급했 다. 관촉사는 이 보험금을 토대 로 요사채 신축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에서 사찰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사찰화재 를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찰 건물 은 대부분이 목조인데다 카페트 등 인화성 물질과 인등과 촛불등 을 사용하므로 상당한 화재위험을 안고 있다.

또 사찰이 산지등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로 이어지는 약점이 있어 화재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 방화로 피해를 입은 서울의 삼성암과 성남 만경암등은 화재직후 보험에 가입했다. "화재를 당하고 보니 중창불사금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화재보험을 드는 것도 불사의 한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이 피해사찰 주지스님들의 전언.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찰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한번도 불이 안났는데 설마…'하는 마음과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내는 보험금이 만만찮아서'라는 현실적 타산 때문이다. 또 '불이 나면 전소된다'는 사찰화재의 특성상 보험회사가 사찰의 화재가입을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일반건축물로 계약하는 경우도 사찰의 화재보험 가입을 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 상품을 잘 선택하면 적은 부담으로 화마에 대비할 수 있다. 국내 11개 화재보험회사 중 유일하게 '사찰화재보험'을 상품으로 내놓은 해동화재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50여 사찰의 가입을 받았다.

해동화재의 사찰화재보험은 단청된 50평 법당건물을 계약액 5억원으로 일반화재보험(소멸성)으로 가입할 경우 1년간 1백97만원(월 16만4천원)의 보험금을 내면된다. 같은 법당을 계약액 5억원으로 장기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1백54만원씩 3년간 5천5백44만원을 불입하고 화재없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 계약액의 1할인 5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찰보험 상품을 개발한 가용우 지점장은 "사찰이 화재보험 상품을 잘 따져보고 건물의 일부나 불상 탱화등에 대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함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유했다.

〈임연태 기자〉

진관스님 석방 탄원서 제출

실천승가회등 18개단체, 김대중 차기대통령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동국대 석림회, 중앙승가대학생회 등 교계 18개 단체는 15일 진관스님(조계종 종회의원) 석방탄원서를 내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진관스님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 제단체는 "전·노 前 대통령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복권됐다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인권운동을 펼쳐온 진관스님의 사면은 당연하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석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로 조계종 종회의원인 진관스님은 지난 96년 10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으로 구속,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3월 개원

'우리말 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전산화…정보 검색엔진도 개발

한국불교의 모든 정보를 전자 문서화해 국내외에 제공하는 전 자불전연구소(가칭)가 동국대에 설립된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해 말 교육부에 연구소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연 구소장을 선임해 오는 3월 개원 키로 했다.

불교학중심의 한국학 연구와 정보·통신시대를 주도한다는 동국대 특성화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불전연구소는 미래 첨단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포교기지를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불교학부와 어문학부 정보산업학부 교수진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할 전자불전연구소는 1차 사업으로 동국역경원이 올해 완역할 '우리말 한글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를 전산화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도록 하는 검색엔진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산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인터페이스 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06년 동국대 1백주년에 맞춰 연구성과를 낼 계획으로 있는 전자불전연구소는 유관단체인 고려대장경연구소와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경주시민 55% '부적절'

경주 황성공원에 건립중인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최근 여론조사결과 현재의 부지가 적절치 않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소장 임배근)가 작년 11월13일부터 18일까지 경주시민 8백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황성공원이 체육관 부지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5%를, 적절하다는 응답은 27%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12일 경제살리기 금모으기운동에 동참하며 1냥짜리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황금불심으로 경제위기 극복"

전국사찰·단체등 금모으기 확산

종단협-조계종 총무원 22일 조계사 모금법회

경제 살리기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불자들의 황금불심이 빛을 발하고 있다. 〈금 관련 경전내용 20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YWCA회관에서 열린 '외채상환 금모으기 범국민운동 발대식'에 참석 1냥짜리 행운의 열쇠를 내놓았다.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은 6일 박사학위 취득 기념으로 받은 두돈 반의 금반지를 내놓아 신도들의 금모으기 동참에 불을 당겼다.

동학사신도 박보리심보살(37 대전시 중구)도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힘이 된다는 것이 기쁘다"며 남편과 상의해 결혼패물 일체를 은행에 맡기고 주변 주부들에게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는 4일부터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능인선원(주지 지광)도 11일부터 금모으기 행사를 시작해 하루 2백여명씩 동참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과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14일 금모으기 행사를 벌였다.

한편 종단협과 조계종 총무원은 22일 오후1시 조계사(주지 현근)에서 금모으기 대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동참을 확산시킨다. 또 같은날 정오에는 도선사(주지 동광)에서, 2월 4일 오전 10시 봉은사(주지 무상)에서 금모으기 법회가 열린다.

조계종을 비롯 태고·천태·진각·관음종 등도 각 사찰별 금모으기 법회를 열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전국 사찰에 발송했다.

동산반야회 '108가지 실천운동' 전개

경제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근검절약 운동이 불교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8일 동산법당에서 'IMF 시대 108가지 시민 실천운동'을 발표하고 전단 5천여부를 제작 전국 사찰 및 시민단체에 발송하는 등 범시민 운동으로 펼치고 있다.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된 108가지 실천과제에는 △과속 운전 안하기 △중고생 삐삐 반납하기 △실내온도 낮추기 등 소비절약 운동에서 △경조사비 줄이기 등 생활의식 개혁 운동까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돼 있다.

뉴스 & 뉴스

교계, 복지관 6곳 수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과천사회복지관(관장 자승·연주암주지)을 비롯하여 서울시내에 성내삼어린이집(원장 박태인) 서초어린이집(원장 이재희) 마포행화어린이집(원장 임아화)등 4곳을 연이어 수탁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구랍 6일 분당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청광·성남 무심정사 주지)을 위탁받아 저소득주민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사업을 전개한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도 구랍 12일 인천동구노인복지회관을 수탁했다.

어린이집 종사자 직무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불교보육프로그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불교어린이집 종사자 직무교육을 20일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교양대학 강의실에서 갖는다.

1백여명의 불교어린이집 원장및 주임교사가 참가하게될 이번 종사자 직무교육은 불교와 유아교육을 접목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불교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이다.

불교 기초교리 무료강좌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교계 위탁 복지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연다. 3월 첫째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종교성향을 배제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마련한 청소년 복지 정규프로그램.

법사들이 자원봉사 강사로 나서 부처님의 생애, 육바라밀, 12연기 등 불교기초교리를 교육할 예정이다. (02)852-0525

박종철열사 11주기 추모

故박종철 추모 11주기 기념법회가 13일 통도사 성전암(주지 도성)에서 박종철씨의 부친 박정기씨, 부산민가협 회원, 대우정밀 노조와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히 치러졌다.

신장기증 '자비행'

염정스님·김여찬씨

생명나눔회 통해 동참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장기를 기증한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회원 염정스님(前동화사, 29세)과 독실한 불자 김여찬씨(포항 대잠초등교, 37세)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함께 요양하며 "나누어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8일 문운정씨(34세. 석왕사신도)에게 장기를 기증한 염정스님은 신장기증자가 없어서 생명을 잃는 환자가 많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다.

"나한테 장기가 2개 있는데 필요한 사람 있어서 1개 떼어준 것 뿐입니다. 저로인해 한 생명을 살릴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스님은 수술하기전과 몸과 마음에 별다를 바가 없다며 퇴원과 함께 수행자의 위치로 돌아가 정진하겠다고.

◇동시에 신장을 기증한 염정스님(사진 왼쪽)과 김여찬씨.

또 13년의 투병기간을 거치며 한쪽 눈이 실명돼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던 박영남씨(42세)에게 15일 장기를 기증한 김여찬씨는 "기분이 좋다. 장기를 기증받으신 분이 평생 건강하고 잘살았으면 합니다"라며 오히려 수혜자를 걱정했다.

목탁소리

이 와중에 재산싸움(?)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지난 6일 소유권을 가진 조계종과 점유권을 가진 태고종간의 분규사찰인 선암사 말사 순천 향림사에 작년 9월 이 사찰 주지에서 해임된 금암스님이 자신이 진짜 주지라며 현 주지 경성스님측과 마찰을 빚는 소동이 일어났다.

내용인즉 본래 태고종 승려였으나 태고총림 선암사 무력점령 등 해종행위를 해왔다는 종단의 판단에 따라 주지에서 해임된 금암스님이 조계종에 귀화를 요청하고 조계종으로부터 주지직을 임명받아 향림사를 점유하려 한 것이다.

태고종은 즉각 '불법사찰침탈행위를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계종에 공식항의했다. 자기종단 승려에게 주지임명장을 준 조계종의 처사에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이다.

반면 조계종은 금암스님이 귀화와 함께 주지직을 요청해 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분규사찰이긴 하지만 법률상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지 임명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어렵다. 이는 단순히 향림사만의 문제가 아닌 5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조계-태고종간의 사찰분규의 한 단면이고, 또 성급히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라 전체가 IMF한파로 열병을 앓고 있는 지금 국민의 정신적 힘이 돼주어야 할 불교계가 재산싸움이나 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고물가와 실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황량하고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남고자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회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두 종단 모두 문제를 밖으로 표출시켜 불교전체에 먹칠을 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합리적 절차라는 가장 중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향림사가 어느 종단의 사찰인가는 언젠가는 결정이 나겠지만 적어도 나라가 어려운 이 때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고의든 아니든 적절치 못했다는 여론을 두 종단 지도자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 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교과목	강사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불교미술 ·밀교사상 ·포교방법론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무진장 스님(본대학학장) ·권기종(동국대교수) ·혜원스님(동국대교수) ·윤열수(동국대교수)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정섭 박사(상락향원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 ·방종(인성개발연구원장)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 ·불교 사회 복지론	·암도스님(교육원장) ·정승석(동국대교수) ·차차석(동국대교수) ·김영태(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전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7년 12월 20일~98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6시 불교회관 및 동산법당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4. 입학일시

1998년 2월 7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겔러리 4층)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부산 : 불서 보급사(246-4321)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대전 : 보 문 서 점(257-0161)
⊙광주 : 불 일 서 점(232-7542)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55-2203)

※ 특전사항 : ❶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❷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묘관음사 도로불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의 삼보 하옵고

IMF의 한파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근세의 대선지식인 운봉, 향곡 두분의 큰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전법도량 묘관음사 입구의 철도 건널목 공사가 약 15년만에 그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건널목 공사를 꼭 완성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뛰어다닌 결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구랍 30일 회향식**을 봉행하였습니다. 약 1억원이 소요된 본 공사를 위해 특히 수고하신 철도청장님과 부산지방철도청장님, 공사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1만여묘관음사 사부대중의 이름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선행을 해 주신 여러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묘관음사 사부대중은 내핍과 청렴을 근간으로 제불자님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불기 2542년 1월 좋은 날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 묘관음사 주지 성문·신도일동 합장

■주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1번지 ☎ : 051)727-2035